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김xx	학번	2021xxxx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밴쿠버
파견대학	Langara College	기간	2023. 8. 6(일) ~ 8. 27(일)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랑가라 컬리지는 밴쿠버의 가운데 부분에 위치하여, 대학 건물은 그리 많지 않지만 팀홀튼, 스타벅스 등등 다양한 카페들이 있어 좋습니다. 시설은 쾌적하니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말 안전하고 편안한 따사로운 곳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역과 가깝다는 것이 최고의 포인트 입니다</p>
수업	<p>수업내용 : 영어 능력의 향상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한 것이 정말 좋았습니다. 문화라던가 캐나다의 존재하는 다양한 것들을 문법과 엮어 이야기하는 부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문법을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p> <p>수업방법 : 저희반의 담당 선생님께서 앉아서 공부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 일어나서 다양한 친구들과 토론하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기 위한 용기를 돋구어주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즐거웠습니다.</p> <p>분반여부 : 상, 중, 하 반으로 나누어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중간 정도의 반에 있었습니다.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었고 레벨 테스트를 가기 전에 합니다.</p> <p>강사 : 각 반마다 강사 즉 선생님이 달랐으며, 각 반마다 실력도 다르지만, 각 반의 특색이 보이는 좋은 선생님들과 함께 하여 정말 좋았습니다.</p> <p>과제 : 5~10분 정도로 하는 간단한 과제가 가끔 있었습니다. 다만, 팀플로 하는 것들이 있어 걱정하였지만 대학 과제 정도가 아니기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p> <p>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 : 수업에 열의가 있으신 선생님과 함께 하면서 수업 전반의 분위기는 낮가림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들 정말 적극적으로 의견의 내고 발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p>

Activity	<p>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에 대해 서술해주세요.</p> <p>- Activity 종류 : 밴쿠버 도시 투어, 밴쿠버 박물관, 카약, 아쿠아리움, 캐필라노 다리</p> <p>-내용 : 밴쿠버 도시를 투어하며 퀴즈를 풁니다. 밴쿠버 박물관은 밴쿠버의 역사를 볼 수 있고요, 카약은 딥코브에 가서 약 2시간 동안 2인 1조로 탑니다.</p> <p>-준비물 : 카약은 모자랑 방수팩, 물에 젖어도 괜찮은 신발을 가져오세요.</p> <p>-추가비용 등은 본인이 아울렛과 같은 쇼핑몰에서 얼마나 쓰냐에 따라 다릅니다. 저녁은 거의 밖에서 먹은 것 같습니다. 호스트가족이 어떻게 밥을 해주시냐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다른 분은 호스트 패밀리 리가 중동권이라 입맛에 맞지 않아서 힘들어 하셨습니다.</p>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현지 기후는 여름이지만 건조하며, 아침엔 13도이고 오후엔 22도 정도로 크게 덥지 않아 정말 최고의 여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산 갱 후드 집업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여름에 오면 바람막이와 같은 얇은 옷을 가져오세요.</p>
안전	<p>현지 안전 상황은 마약이나 홈리스들이 많지만 저녁 늦게 차이나타운이나 동쪽 헤이스팅스 거리를 돌아다니지 않는 이상 안전합니다.</p>
숙소	<p>기숙사() 홈스테이 (O) 외부 숙소() 기타()</p> <p>숙소 시설은 샤워 부스가 작은 것 빼곤 샤워 규칙이나 통금에 크게 압박을 주시지 않아서 좋았습니다.</p> <p>분위기는 저희 홈맘이 바쁘신 분이라 같이 식사할 기회는 없었지만 항상 친절하게 오늘 무슨 일 있었는지 다른 장소를 추천해 주신다거나 필요한 게 있는지 물어봐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p> <p>규칙은 공통적으로 통금이 있으며, 그 외에는 딱히 없었습니다.</p> <p>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 : 노트북 안가져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본인 수강신청으로 걱정한다면 가져오셔 됩니다만 저는 핸드폰으로 해서 중핵을 잡았기에 노트북을 가져가고 싶다면 고민해보세요. 그리고 저희 홈스테이는 안 그러셨지만 방에 들어오시는 홈스테이 패밀리도 있다고 했습니다.</p>
식사	<p>기숙사식당() 홈스테이 (O) 외부식당 (O) 기타()</p> <p>홈맘이 그럭저럭 밥을 해주셔서 저는 가끔 가져온 라면을 야식으로 먹는</p>

	다거나 그런 경우만 종종 있고, 한국식당을 거의 가지 않았습니다. 식당에서 술을 마신다고 하면 기본 인당 3만원은 생각하고 가세요. 물가가 생각 이상으로 많이 비쌉니다. 팁 문화가 있으니 유의하세요.
교통	<p>전 홈맘과 만난 첫 날부터 집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셔서 쉽게 갈 수 있었습니다. 스카이 트레인이라는 한국의 지하철과 같은 것을 타고 다녔습니다. 여기는 한국과 다르게 호선이 여러개 있지 않아서 정말 좋습니다. 버스는 항상 구글맵이나 지도앱 통해서 수시로 확인하며 다녀야합니다. 재시간에 오긴 하지만 가끔씩 지연되거나 좀 더 빠르게 옵니다. 한국처럼 버스 정류장에 몇 전인지 나오는 것이 없이 딸랑 표지판만 있는 경우가 많으니 유의하세요.</p> <p>컴패스 카드를 주셔서 교통비용은 걱정 없습니다. 다만 Zone1을 넘어선 2,3 Zone을 저녁 6시 반 이전에 간다면 지불하셔야합니다. 저 시간 이후 사용하신다면 무료입니다. 빅토리아 섬을 가신다면 지페로 1Day 패스권 1인당 5달러 필요합니다.</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2,856,000원	출국 전 사전 납부
eTA (전자여행허가)	CAD 7\$	출국 전 본인이 직접 신청
여행자보험	41,470원	출국 전 사전 납부
외식 + 쇼핑	1,091,825원	개인에 따라 다름
합계		

5. 출국 전 준비사항

<p>생각보다 지페는 많이 사용하지 않으나 야시장과 빅토리아 섬을 가는 경우 지페가 필요하니 10만원정도만 바꾸시고 나머지는 카드로 계산하는 것이 편합니다.</p> <p>석회수 등으로 피부 걱정했는데 밴쿠버는 정말 좋습니다. 각 집마다 여과기 필터를 사용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지만 헤어 에센스는 챙겨가세요. 물을 많이 마신다면 텀블러 추천이며 큰 캐리어에 짐을 넣고 기념품 넣을 작은 캐리어 하나 비워서 가져가세요. 그리고 올 때 기내 가방 개수 걱정했는데 작은 캐리어에 백팩에 쇼핑백 들고 갔는데 별 말 안하셔서 좋았습니다. 드라이기는 여기 와서 런던 드러그에서 사고 버리거나 홈스테이에 말해서 다음 오는 룸메이트에게 줘도 좋습니다.</p>

6. 본인 소감 및 평가

토익 성적이 높지 않아서 많이 불안하였지만 붙었으며, 정말 이 3주 동안 알차게 보내기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어딘가를 돌아다녔습니다. 도전해보았기에 이런 귀한 경험을 할 수 있었으며, 하루하루가 정말 행복한 날들이었습니다. 다른 나라 친구들과 이야기 해볼 수 있으며, 나 자신을 좀 더 아껴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좀 더 글로벌한 것들을 해보고 싶으며, 기회가 된다면 밴쿠버에서 워킹 홀리데이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푸름을 좋아하기에 밴쿠버의 자연은 정말 힐링 그 자체였습니다. 피크닉을 하며 생각을 비울 수 있었으며, 앞으로 하고 싶은 것을 계획해보고 꿈꿔볼 수 있던 귀중한 3주였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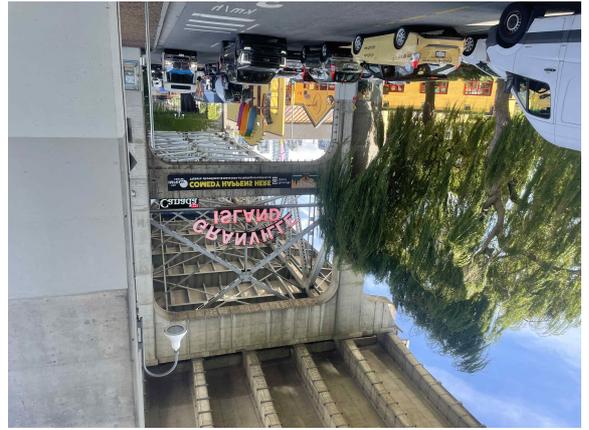
	
<p>UBC</p>	<p>키칠라노 해변</p>
	

잉글리시 베이



빅토리아 아일랜드

가스 타운



그랜빌 아일랜드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김xx	학번	2019xxxx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밴쿠버
파견대학	Langara College	기간	2023. 8. 6(일) ~ 8. 27(일)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해 서술해주세요.</p> <p>학교 바로 앞에 버스정류장이 있고, 걸어서 5분 거리에 스카이 트레인 역이 있어 교통은 편리합니다. 또한, 다운타운이나 메인 스트리트 등 번화가와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수업 후 놀러 가기에 좋았습니다. 학교 규모는 생각보다 크고, 시설도 다양하고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건물 안에 스타벅스, 팀홀튼 등의 카페가 있어 편리하게 이용하였습니다.</p>
수업	<p>수업내용, 수업방법, 분반여부,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p> <p>프로그램 파견 전 랑가라 측에서 레벨 테스트를 위한 링크를 메일로 보내줍니다. 온라인으로 볼 수 있는 테스트이고,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테스트를 응시하면 됩니다. 이 테스트를 토대로 반을 나누는 것 같습니다. 일본 학생들과 한국 학생들이 섞여서 반이 나누어졌습니다.</p> <p>저희 반의 경우 문법보다는 회화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파트너를 바꾸어가면서 여러 사람과 이야기할 수 있도록 유도하셨습니다. 숙제는 한 주에 1번 정도 있었고, 오래 걸리지 않는 간단한 숙제였습니다.</p>
Activity	<p>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에 대해 서술해주세요.</p> <p>-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등</p> <p>일주일에 1~2번씩 문화 체험 활동이 있습니다. 디스커버리 밴쿠버(캐나다 플레이스, 다운타운, 사이언스 월드, 그랜빌 아일랜드)밴쿠버뮤지엄, 카약</p>

	<p>킹, 아쿠아리움, 캐필라노 현수교를 방문했습니다. 대부분 오래 걸어야 하기 때문에 편한 복장과 신발을 착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카약킹의 경우 물이 생각보다 많이 튀기 때문에 방수 재질의 바지를 착용하거나, 여벌 옷을 챙기는 것을 추천합니다. 디스커버리 밴쿠버의 경우 팀원들과 점심을 사 먹을 수도 있으니 약간의 식비를 챙기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외의 입장료 등의 비용은 학교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간단한 간식이나 기념비 구매 비용만 챙기면 될 것 같습니다.</p>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현지 기후 및 유의점 아침, 저녁에는 굉장히 쌀쌀합니다. 낮에는 햇빛이 강렬해도 그늘 아래 있으면 선선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얇은 재킷이나, 걸칠 수 있는 셔츠를 챙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햇빛이 세기 때문에 선글라스와 선크림은 꼭 챙기는 것을 추천합니다.</p>
안전	<p>현지 안전 상황 생각보다 치안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자신의 소지품을 잘 챙겨야 합니다. 또한, 해가 진 뒤에는 사람들이 잘 돌아다니지 않고 가로등이 적은 편이기 때문에 해가 지기 전에 귀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운타운 쪽에는 홈리스들을 종종 마주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하고, 마주치더라도 무시하고 빠르게 지나가야 합니다. E Hastings St와 차이나타운은 가지 않은 것이 좋고, 지나치는 경로라면 돌아가는 것이 좋습니다.</p>
숙소	<p>기숙사() 홈스테이(√) 외부 숙소() 기타() 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 필리핀에서 이민 오신 부부의 집에 배정되었고, 룸메이트는 없었습니다. 이층에 있는 개인 방과 개인 화장실을 사용하였습니다. 전자레인지나 전기 포트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인덕션 사용은 불가능했습니다. 샤워는 10시 반 이전에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제한 시간은 없었습니다. 두 분 다 항상 다정하게 대해 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3주간 별 탈 없이 잘 지내고 왔습니다.</p>
식사	<p>기숙사() 홈스테이(√) 외부 숙소() 기타(√) 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 아침은 홈스테이에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토스트나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거나, 과일이나 시리얼을 먹었습니다. 점심은 직접 샌드위치를 만들어 가거나, 냉장고에 있는 음식들을 용기에 담아서 가져갔습니다. 저녁은 대부분 친구들과 외식을 하였습니다.</p>
교통	<p>통학방법, 시내교통 관련 학교에서 버스, 스카이 트레인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를 제공하기 때문에 교통비는 들지 않습니다. 버스는 추가 요금 없이 이용 가능하지만, 스카이 트레인의 경우 평일 6시 반 이전에 Zone1을 벗어난 지역(리치몬드, 버나비 등)으로 이용하면 추가요금이 발생합니다.</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2,856,000원	출국 전 사전 납부
eTA (전자여행허가)	CAD 7\$	출국 전 본인이 직접 신청
여행자보험	41,470원	출국 전 사전 납부
식비, 쇼핑, 기타비용	1,350,000원	비자카드 사용
합계	4,254,470원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홈스테이 가족분들께 메일을 보내 개별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들과 규칙 등에 대해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날씨가 생각보다 덥지 않고, 비가 오거나 흐린 경우 쌀쌀하기 때문에 걸칠 수 있는 옷들을 챙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부분의 아침 점심이 토스트나 샌드위치이기 때문에 많이 물립니다. 컵라면이나 컵밥 등을 준비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물값이 정말 비싸기 때문에 텀블러를 챙겨가 홈스테이에서 물을 채워가거나 학교 내 정수기를 이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3주가 생각보다 짧기 때문에 미리 가고 싶은 곳이나 먹고 싶은 것들을 정리해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인생에서 평생 잊지 못할 3주를 보내고 온 것 같습니다. 일본어, 중국어 등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친구들과 영어로 소통하는 것이 너무나도 새롭고 신기했습니다. 영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3주는 생각보다 굉장히 짧습니다. 학교 끝난 후에도, 주말에도 홈스테이에서 쉬는 것보다는 이곳저곳 많이 놀러 다니는 것을 추천합니다.
쇼핑이나 변화가 구경도 좋았지만, 맑은 날씨에 하얀 구름 그리고 파릇파릇한 자연경관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공원이 곳곳에 있으니 피크닉 매트를 챙겨가 자리를 잡고 자연과 함께 휴식을 취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p>가스타운 - 증기시계</p>	<p>그랜빌 아일랜드</p>
	
<p>스탠리 파크</p>	<p>캐필라노 현수교</p>
	
<p>밴쿠버 박물관</p>	<p>빅토리아 아일랜드</p>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김xx	학번	2022xxxx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밴쿠버
파견대학	Langara College	기간	2023. 8. 6(일) ~ 8. 27(일)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Skytrain 역까지 걸어서 7분이면 갈 수 있는 곳으로 꽤나 도심입니다. 학교 안에 팀홀튼, 스타벅스, 북스토어 등 간단한 편의시설과 먹거리가 있고 파견 당시에 학교가 방학이기 때문에 학생 수가 그리 많진 않습니다. 순천향대학교보다 크기는 작거나 비슷한 것 같고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university가 아니라 명문대에 가기 위한 발돋움 이 되는 college의 역할을 하는 학교입니다.
수업	<p>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 대부분 팀 프로젝트로 하루 수업이 완성됩니다. 3개의 레벨로 나누어져 3개의 학급이 구성되고 이전에 온라인으로 테스트한 배치고사에 따라 배정됩니다. 배치고사에서 오류가 있었을 경우 반드시 수업 첫날이나 OT때 재시험을 요청해야 합니다.</p> <p>과제는 없는 날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첫 주에 꽤 있었던 것 같고 20분 이내로 끝나는 과제로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p> <p>학급에는 일본인, 중국인, 한국인으로 구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프로그램 참여 동안 영어가 늘기 보다는 익숙해지는데 큰 도움을 준 것 같습니다. 주로 아시아인과 대화를 하다보니 영어가 폭발적으로 느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p> <p>프로그램 파견 이전 동안 회화를 공부하시고 파견 후에 활용해보는 방식으로 언어공부를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p>
Activ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ayaking - 모자, 선글라스, 갈아입을 하의를 따로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 Museum of Vancouver - Aquarium - Capilano Suspension Bridge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현지 기후 및 유의점 일교차가 심한 편이니 반팔과 겹옷을 가져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바람막이와 기모가 없는 자켓을 가져오면 좋겠습니다. 선글라스는 필수입니다. 나무가 많지만 키가 커서 그들의 역할을 해주지 못합니다.
안전	현지 안전 상황 해가 길지만 빠르게 집니다. 오후 9시부터 갑자기 캄캄해지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치안은 괜찮지만 가로등이 적어 밤길이 매우 어둡습니다. 웬만하면 오후 11시 이전에는 귀가하면 좋겠습니다.
숙소	기숙사() 홈스테이 (○) 외부 숙소() 기타() 샤워시간이 엄격한 홈스테이에 배정돼 애를 먹었습니다. 사전에 홈스테이 신청서 작성 시 본인이 원하는 것을 최대한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같은 층에는 누구와 같이 사는지, 샤워시간은 몇시까지 가능한지 등 홈스테이 가족과 미리 컨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식사	기숙사식당() 홈스테이 (○) 외부식당 (○)기타() 밖에서 주로 놀다보면 홈스테이에서 밥을 먹을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주로 아침식사를 하고, 점심은 샌드위치나 밥을 준비해주셨습니다.
교통	학교까지 버스를 타고 10분에서 15분정도 걸렸습니다. 교통은 속지만 잘 해두면 편리합니다. skytrain과 버스만 이용해도 벤쿠버 곳곳은 다 누빌 수 있습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2,856,000원	출국 전 사전 납부
eTA (전자여행허가)	CAD 7\$	출국 전 본인이 직접 신청
여행자보험	41,470원	출국 전 사전 납부
신용카드	1,950,000	식비, 기념품, 교통비
현금	300,000	식비, 기념품, 교통비
합계	5,154,270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에 갈 곳을 미리 정해두면 좋습니다. 언어 공부 목적보다는 여행이 큰 할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할지 말지 고민하지 말고 일단 시도해보는 마음가짐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홈스테이는 생활전반에 있어 큰 영향을 차지합니다. 인터넷으로 미리 사전조사를 한 다음 신청서 작성 시 시간을 들이는 것을 추천합니다.

캐리어는 무조건 수화물 용하나 기내용 하나 두 개를 가지고 갈 것을 추천합니다. 없다면 캐나다에 와서 하나사면 좋을 것 같습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날씨도 거리도 음식도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특히나 사람들의 가치관이 한 곳에 얽매어 있지 않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 사람이 태어난 나라, 환경, 성격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현재에 있어 그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역량만으로 판단한다는 점이 충격을 주었습니다.

맑은 날씨에 기분이 좋고, 오늘 먹은 아침이 완벽했고 작은 것 하나에 기분이 좋은 것을 표현하는 문화가 좋았습니다. 나는 어떠한 이유로 내 기분이 어떠한다는 나 중심으로 매일 매일 PR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자신의 기분, 생각을 솔직하게 말하는 문화에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완곡한 표현이 익숙했던 저에게 제 자신에게 솔직해야 하는 매순간이 도전이었습니다. 불평하고 싶은 것도 고치고 싶은 것도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으면 억울해지는 것은 제 자신이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학급 선생님께 피드백을 받는 시간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 가능성을 보았고 제가 미처 보지 못한 제 모습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새로운 환경에서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똑같은 일상을 살아온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성향, 생각, 가치관에 따라 같은 환경이라도 모두 다르게 반응합니다. 한 나라의 문화에 적응할 때 본인의 호불호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을 그 문화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문화를 알아가는 것이 다른 나라를 여행할 때 얻어갈 수 있는 큰 메리트라고 생각합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p>카약</p>	<p>리치몬드 랍스터피자</p>
	
<p>마지막 날 피크닉</p>	<p>캐필라노 브릿지</p>



킷실라노 비치



PNE FAIR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최xx	학번	2019xxxx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밴쿠버
파견대학	Langara College	기간	2023. 8. 6(일) ~ 8. 27(일)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p> <p>랑가라 대학은 시내에 위치해 있어 교통이 편리하여 학교 끝나고 어디든 이동하기에 좋았습니다. 학교 규모는 생각보다 컸지만, 주로 수업하는 건물만 이용한 점이 아쉬웠습니다. 학교 시설은 전반적으로 크고 깔끔했으며 학교 내에 스타벅스와 팀홀튼이 있어 점심 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이용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p>
수업	<p>수업내용, 수업방법, 분반여부,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p> <p>받은 총 3개의 반으로 이루어졌고 출국하기 전, 온라인 레벨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레벨 테스트로 반을 나누었으며 수업은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수업 방식은 다양한 게임, 역할극, 발표 등 주로 활동적인 수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오전에는 2~3명이 파트너가 되어 영어로 스피킹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본, 브라질 등 다른 나라의 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들었으며 서로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방과 후에는 같은 반 친구들과 자유롭게 놀러 다니며 일본 친구들과도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을 가져 좋았습니다. 오전 수업만 하고 오후에는 학교에서 다같이 Trip을 가는 날도 있었습니다. Trip을 다녀온 후에는 팀을 이뤄 Trip에 관련하여 자료를 조사하고 PPT를 만들어 발표를 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숙제는 많지 않았으며 홈스테이 가족에게 질문하고 답을 작성하거나 수업 시간에 배운 문법을 활용하여 작문하는 숙제 등 어렵지 않아 부담 없이 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학생들이 영어 스피킹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옆에서 잘 지도해주셨습니다. 항상 학생들을 먼저 생각해주시고 즐거운 수업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셨습니다.</p>

Activity	<p>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에 대해 서술해주세요.</p> <p>-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등</p> <p>-밴쿠버 관광 : 반에서 구성된 팀, 선생님과 함께 밴쿠버 Trip을 하였습니다. 다운타운과 그랜빌 아일랜드를 투어하였고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나눠주신 종이에 빈칸을 채우며 돌아다녀야 했기 때문에 작성할 수 있는 펜이 필요합니다.</p> <p>-카약 : 햇빛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선크림과 모자, 선글라스를 챙겨야 합니다. 또한 바지가 젖을 수 있어 여분의 옷과 수건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p> <p>-아쿠아리움 : 아쿠아리움 주변에 스탠리파크가 있어 Trip이 끝난 후에 스탠리파크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을 추천합니다.</p> <p>-캐필라노 브릿지 : 많이 걸어야 하므로 편한 옷차림과 운동화를 신는 것이 좋습니다.</p>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현지 기후 및 유의점</p> <p>날씨는 습한 한국의 날씨와 달리 건조한 편입니다. 8월의 밴쿠버 날씨는 아침, 저녁으로 조금 쌀쌀하며 낮에는 굉장히 화창하고 햇빛이 강했습니다. 따라서 얇은 긴팔과 반팔을 골고루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p>
안전	<p>현지 안전 상황</p> <p>학교와 홈스테이 주변에는 홈리스가 없었지만, 다운타운에는 홈리스가 꽤 있었습니다. 하지만 홈리스가 직접적으로 해를 끼치는 경우는 많이 없기 때문에 무시하고 다니면 크게 위험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위험한 지역인 차이나타운과 이스트 헤스팅스 거리는 가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다녀왔습니다. 버스로 이스트 헤스팅스 거리를 지나가야 할 경우에는 돌아가는 방법을 택하였고 절대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p>
숙소	<p>기숙사() 홈스테이 (O) 외부 숙소() 기타()</p> <p>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p> <p>홈스테이 위치는 학교에서 버스로 15분 거리에 있었으며 조용한 동네에 위치한 집이었습니다. 같은 프로그램을 듣는 일본인 룸메이트가 있었으며 홈스테이 가족분들은 친절하고 배려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녁을 집에서 먹어야 하는 경우는 미리 연락을 드렸고 한국에서는 매 끼니에 쌀을 먹는다고 말씀을 드리니, 저녁으로 쌀밥을 해주시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해주</p>

	<p>셨습니다. 필요한 음식이 있을 경우, 말씀드리면 냉장고에 음식을 채워주셨고 과자, 시리얼 등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습니다.</p> <p>샤워 시간은 따로 정해주시진 않았지만 늦은 시간에는 하지 않도록 유의하였고 우리나라와 달리 핸드 샤워기가 없기 때문에 이 점이 조금 불편하였습니다. 세탁은 처음에 사용 방법을 알려주셨으며 세탁기와 건조기를 모두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하였습니다.</p>
식사	<p>기숙사식당() 홈스테이 (O) 외부식당 () 기타()</p> <p>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p> <p>아침은 보통 홈스테이 집에서 시리얼, 토스트나 과일, 요거트를 먹었습니다. 점심은 도시락을 준비해야 합니다. 도시락은 거의 샌드위치를 싸주셨고 원하는 샌드위치가 있을 경우 미리 말씀드리면 준비해주셨습니다. 저녁은 거의 밖에서 사 먹었습니다. 종종 홈스테이 집에서 먹기도 하였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저녁을 준비해주셨습니다.</p>
교통	<p>통학방법, 시내교통 관련</p> <p>학교에서 준비해준 교통 카드인 컴패스 카드를 이용하여 돌아다녔습니다. 버스, 지하철 모두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1존 카드이기 때문에 1존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이동할 경우 추가 비용이 붙게 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평일 6:30 이후에는 추가 요금이 발생하지 않아 시간을 고려하여 이동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밴쿠버 버스는 지연이 자주되며 가끔 일찍 끊기는 버스도 있기 때문에 집에 돌아갈 때 매번 잘 확인해야 합니다.</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2,856,000원	출국 전 사전 납부
eTA (전자여행허가)	CAD 7\$	출국 전 본인이 직접 신청
여행자보험	41,470원	출국 전 사전 납부
식비, 쇼핑 등	1,500,000원	
합계	4,760,000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3주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짧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곳을 경험하고 다닐 수 있도록 가고 싶은 곳들을 미리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출국 전, 홈스테이 부모님께 메일을 통해 연락을 드리고 필요한 물건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드라이기나 고데기 같은 경우는 전압이 다르면 변환기를 사용해도 이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프리볼트 종류로 구입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홈스테이 가족과 학교에서 만난 다른 나라 친구들에게 줄 선물과 편지지도 미리 구입해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매일 방과 후에 돌아다니다 보면 체력적으로 피곤하고 힘들기 때문에 비타민, 영양제를 챙겨오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주말에는 거리가 먼 지역인 빅토리아 아일랜드, 휘슬러에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동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그만큼 꼭 가보면 좋은 곳들입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단기어학연수를 마치고 나서,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크게 증가했고 스피킹에 대한 흥미도 많이 생겼습니다. 밴쿠버에서의 3주는 너무 짧았기 때문에 다음에 또 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같은 반 친구들, 선생님 등 좋은 인연을 알 수 있게 되어 너무 좋았고 특히 같은 반 친구들과는 많은 정이 들어 헤어져야 하는 마지막 날 너무 아쉽고 슬펐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졸업 후에 해외로 취업하고 싶은 목표가 생겼습니다. 단기어학연수를 가기 전에는 '내가 캐나다에 가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하는 걱정과 두려움이 컸는데, 지금은 '꼭 해외로 취업해서 살아야지!'라는 생각으로 바뀔 정도로 단기어학연수 프로그램은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지고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동기부여가 되어준 프로그램입니다.

3주 동안 정말 많은 곳을 여행하며 소중한 추억을 쌓았습니다. 짧은 시간이라는 압박감에 더 열심히 돌아다니게 되었는데 후회없이 너무 좋았습니다. 일본인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며 놀러 다니는 일상은 큰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친구들과 교류하고 어울리는 것을 추천합니다.

캐나다 사람들은 대부분 친절하고 배려심이 많았습니다. 버스를 탈 때마다 인사하고 먼저 타라고 배려해주는 일상이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어딜가나 친절하게 대해주고 말을 걸어주며 스물토록 좋아하는 나라인 캐나다는 좋은 나라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그랜빌 아일랜드



딥코브_카약



빅토리아 아일랜드



휘슬러



스탠리파크



키칠라노 비치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강xx	학번	2022xxxx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밴쿠버
파견대학	Langara College	기간	2023. 8. 6(일) ~ 8. 27(일)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p> <p>밴쿠버에 있는 Langara College에 파견되었다. langara College는 크기는 작지만, 전체적으로 공간을 잘 활용하는 분위기이다. 자주 사용하는 건물은 Building A로 건물 안에 Tim Holtons과 밥 먹을 공간이 있어 큰 이동 없이 필요한 시설을 다 활용할 수 있었다.</p>
수업	<p>수업내용, 수업방법, 분반여부,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p> <p>수업은 문법보다는 주로 발표와 말하기 위주로 진행된다.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간단하게 전날에 학교 끝나고 무엇을 했는지 가볍게 대화를 나누고, 간단한 게임을 모둠으로 진행해 영어로 말하는 것에 익숙하게 해 수업을 시작했다. 반은 캐나다로 가기 전에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 결과로 반이 결정된다. 3개의 반으로 나누어진다. 과제는 딱히 없었다. 모둠 발표하는 것도 최대한 수업시간에 끝낼 수 있도록 교수님들이 배려를 해주신다. 수업 준비도 딱히 할 것이 없다. 첫날에는 나누어주는 교재가 있는데, 그 책을 들고 다니면 된다.</p>
Activity	<p>활동 종류로는 밴쿠버 시내 투어하기, 카약 타기, 카필라노 브릿지 가기 등 밴쿠버의 명소와 유명 활동들을 할 수 있는 활동들이 있다. 준비물로는 선글라스 필수이다. 해가 워낙 뜨겁기 때문이다. 그리고 카약을 타러 갈 때에는 핸드폰을 목에다 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전하다. 그 외 추가 비용으로는 활동이 끝나고 나서 자유시간에 제공되는데, 그때 사먹는 간식거리 비용이 들어간다.</p>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날씨는 너무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날씨이다. 하지만 해가 강하기 때문에 오후가 되면 눈이 부시기 때문에 선글라스를 들고 다니는 것이 필수이다.
안전	생각했던 것보다 안전했다. 하지만, 한국에도 어느 거리가 조금 치안이 나쁘다는 것처럼 캐나다에서도 유독 마약하고 집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리가 있다. 그 거리와 너무 늦은 밤길만 조심하면 안전은 우리나라와 다를 바가 없다.
숙소	<p>기숙사() 홈스테이 (O) 외부 숙소() 기타()</p> <p>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p> <p>홈스테이 가정에서 3주 동안 지냈다. 열쇠를 쓰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문을 여는 것에 조금 불편이 있었지만, 나머지는 불편한 것이 없었다. 딱히 규칙이 있지는 않았고, 상식적으로 너무 늦은 시간에 샤워하지 않는 것밖에 없었다.</p>
식사	<p>기숙사식당() 홈스테이 (O) 외부식당 () 기타()</p> <p>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p> <p>주로 홈스테이에서 저녁을 먹었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밖에서 식사를 했다. 점심도 홈스테이 엄마가 다 만들어주고, 싸주셔서 전자레인지에 살짝 돌려서 먹으면 되었다.</p>
교통	<p>통학방법, 시내교통 관련</p> <p>통학은 학교까지 가는 버스가 있어서 버스를 이용해 등교했다. 다운타운 까지도 바로 가는 버스가 있어 skytrain은 자주 이용하지 않았다. 그랜빌 아일랜드에서는 다운타운까지 가는 sea taxi가 있어, 그랜빌 아일랜드에서는 sea taxi를 자주 이용했다. Sea taxi는 compass card 사용이 안되고, 현금이나 카드로 결제해야한다.</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2,856,000원	출국 전 사전 납부
eTA (전자여행허가)	CAD 7\$	출국 전 본인이 직접 신청
여행자보험	41,470원	출국 전 사전 납부
식비, 쇼핑 등	2,500,000원	
합계	5,404,470원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파견 전에 주말에 무엇을 할 것인지 어느정도는 정하고 갔으면 좋겠다. 그 장소까지 가는 방법, 그 곳에서만 할 수 있는 활동이 무엇인지 등을 미리 사전조사하고 가면 배로 즐길 수 있을 것 같다. 출국 전에 어느 정도의 돈을 현금으로 미리 바꾸는 것이 좋다. 개인적으로 요즘 해외결제 혜택이 있는 카드가 많아 현금을 쓸 일이 없을 것 같았다. 그런데 리치몬드 야시장은 현금만 받기도 하고, 일부 가게들은 카드로 결제했을 때 따로 카드 수수료가 붙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돈은 현금으로 환전해서 가는 것을 추천한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장기간 해외에 있는 것이 처음이며, 영어권 나라에 있는 것이 처음이라 아무래도 치안, 언어, 문화 등 많은 걱정이 있었다. 그러나 생각보다 언어로 인한 불편함은 많이 느끼지 못했다. 다만 확실히 발음으로 인해서 잠시 소통이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오히려 발음을 고칠 수 있어서 좋다. 그리고 치안에 대해서 걱정이 많았는데, 생각보다 안전했고, 밤 늦게까지 안 다니고, 위험한 거리만 피해서 다니면 걱정이 없었다. 이번에 단기어학연수를 갔다오고 나서 느낀 점은, 해외에서 공부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교환학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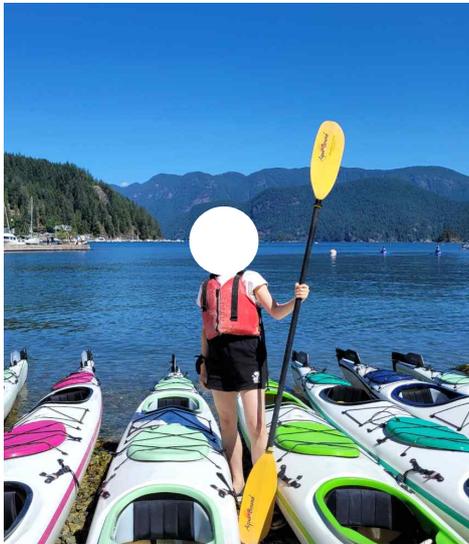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카필리노 브릿지 보러 갔을 때 사진



아쿠아리움 앞에 있는 동상



카약 타러 갔을 때 사진



리치몬드 야시장 사진



밴쿠버 박물관에서 찍은 사진



잉글리시 베이에서 찍은 사진